



# 허정무호 소집 '발등의 불'

내년 2월 투르크메니스탄전 앞두고  
규정대로 집합엔 겨우 2~3일 훈련

정해성 코치 "구단 협조 얻어 조기소집 필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대회 아시아지역 3차 예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허정무호가 국가대표팀 소집에 '발등의 불'이 켜졌다.  
아시아 지역예선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북한의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중국 윈난성 쑤밍을 찾은 정해성 국가대표팀 수석코치는 14일 인천 유니티드와 북한 4.25축구 팀 경기를 지켜본 뒤 한국으로 떠나기 전 "빠른 시일 내에 대표팀을 소집해 훈련에 돌입해야 한다. 다음 달 20일까지는 대표팀을 소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표팀을 맡아왔던 외국인 감독이 다섯 차례나 교체되면서 팀 컬러가 고정돼 있지 않은 데다 목표의식과 책임감을 상실했다고 평가받는 태극전사들의 승부욕도 전보다 떨어져 있는 등 하루 빨리 호흡을 맞춰 본래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한층 엄격해진 대표팀 소집 규정을 행하기도 어려워져 K-리그 대표팀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점.  
정 코치에 따르면 대표팀 소집 규정에

의거해 훈련에 돌입할 경우 내년 2월6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예선 1차 홈 경기를 앞두고 같은 달 2일 소집을 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 2~3일 동안만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 코치는 "대표팀 선수들의 조기 소집을 위해서는 프로 축구단의 협조를 이끌어내 소집 시기를 앞당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정무호는 일단 내달 말까지의 첫 소집 훈련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정하고 허 감독과 정 코치 등이 각 K-리그 구단에 직접 연락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정 코치는 "프로 팀으로부터 2008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을 차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국가대표팀을 뽑아간다고 일반적으로 통보하면 불만을 살 수 있다"면서 "허 감독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각 구단에 협조를 받아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표팀은 내달 소집 일정이 확정되면 남해 또는 제주도로 전지 훈련을 떠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

# 정상은, 만리장성 넘어 정상 '우뚛'

조선족 출신 남자 탁구 기대주 정상은(17·동인천고)이 만 18세 이하 선수들이 참가한 2007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만리장성을 허물고 대회 출전 사상 첫 우승했다.

정상은은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열린 남자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수루이핑에 두 세트를 먼저 내주고도 4-2(7-11 8-11 12-10 11-7 11-9 11-8)로 승리하는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한국 남자가 세계주니어선수권에서 우승하기는 2003년 대회 창설 이후 처음이다.  
올해 그랜드파이널스 21세 이하 부문 정

중국 수루이핑에 4-2 역전  
주니어탁구선수권 첫 우승

상에 오른 조연래(농심삼다수)가 1, 2회 대회에서 잇따라 아쉬운 준우승에 그친 게 한국의 최고 성적이었다.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 조선족 자치주에서 아버지 정부원(51), 어머니 김난(49)씨 사이에서 태어나 지난해 3월 한국에 온 정상은은 1년 만에 '코리아 드림'을 이뤘다.

또 앞서 단체전 결승에서 패배를 안겼던 중국에 설욕했고 협회 집행부 갈등으로 여수선한 탁구계에도 낭보를 전하게 됐다.  
8강에서 중국의 송시차오를 4-0으로 완파한 뒤 대표팀 후배인 이상수(부천 중원고)와 준결승 대결을 4-2 승리로 장식했던 오른손 세이크핸드 정상은은 결승에서 수루이핑을 만나 1, 2세트를 빼앗겨 패색이 짙았다.  
하지만 승부처였던 3세트 듀스 대결을 12-10으로 이긴 뒤 4세트까지 따내 승부를 완점으로 돌렸다.  
기세가 오른 정상은은 5, 6세트도 점점 끝에 모두 가져오며 역전 우승을 확정했다.



# 삼성화재 5연승

NH농협 프로배구

프로배구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보험업계 라이벌 LG손해보험을 꺾고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삼성화재는 16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7~2008 V-리그' 남자부 1라운드 홈경기에서 크로아티아 출신 레프트 안필코 추크(24득점)를 앞세워 이경수(16득점)와 기예르모 팔라스카(14득점)가 분전한 LG손해보험을 세트스코어 3-0(25-23 25-19 25-20)으로 완파했다.  
당초 약체로 평가받은 삼성화재는 끈끈한 조직력을 발휘해 1라운드에서 5전 전승으로 선두에 나서 우승후보로 떠올랐다.  
반면 우승후보로 거론된 LG손해보험은 최근 3연승을 달리다 삼성화재의 벽을 넘지 못하고 3위(3승2패)로 1라운드를 마감했다.  
또 대한항공 점보스는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상무와 홈 경기에서 라이트 김학민(18득점)과 레프트 장광균(16득점)의 활약에 힘입어 세트스코어 3-1(28-26 23-25 25-16 25-20)로 이기면서 1라운드를 2위(4승1패)로 마쳤다. /박진표기자 lucky@

# 이영표 또 플타임 출전

이영표(30·토트넘)가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1번째 선발출전에서 플타임을 뛰면서 팀의 시즌 첫 원정 경기 승리를 보냈다.  
이영표는 16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포츠머스 홈 구장인 프리어드 파크에서 치러진 정규리그 17라운드 원정경기에 왼쪽 풀백으로 선발출전, 90분 동안 안정된 수비를 앞세워 토트넘의 1-0 승리에 밑거름이 됐다.  
토트넘은 후반 36분 에른 레년의 오른쪽 크로스를 받은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의 결승골을 앞세워 1-0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시즌 첫 원정 경기 승리를 맞았다.  
반면 포츠머스는 베르바토프의 일격에 무너지면서 최근 11경기 무패행진(7승4무)을 마감하고 이번 시즌 첫 홈 경기 패배의 쓴맛을 봤다.

# 심판 판정 불복 초교 축구감독

광주축구협, 자격정지 2년 결정

광주광역시 축구협회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갖고 최근 심판 판정에 불복, 경기 중 학생들 앞에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S초교 A감독에 자격정지 2년, B코치에 대해 경고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S초교 A감독은 지난달 열린 소년체전 광주지역 2차예선 W초교와 경기 후반에 심판 판정에 항의하고 학부모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1차 이사회에서 무기한 자격정지, B코치는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LG 블랭스 드라이브인 슛 16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프로농구 창원 LG와 안양 KT&G의 경기에서 창원 블랭스가 멋진 슛을 날리고 있다. LG가 90-89로 1점차 승리를 거뒀다. /연합뉴스

- 00·SBS스포츠·SBS골프
- ▲07/08 스페인 프리메라리가(R.마드리드 : 오사수나)(05 : 00·KBS N SPORT)
- ▲2007 4개국 대학배구대회 결승(13 : 50·SBS스포츠)
- ▲07/08 여자프로농구(신한은행 : 금호생명)(18 : 50·SBS스포츠)
- ▲2007 PGA 타지 월드 챔피언십 FR(05 :

# KIA 내일 납회식...이현곤 '최우수 선수'

올 시즌 갑상선 질환의 고통을 딛고 전 경기 출장 기록을 세우며 생애 첫 타격왕(타율 0.338)과 최다 안타왕(153개)에 오른 이현곤(27·사진)이 구단이 선정하는 최우수선수를 받는다.  
KIA타이거즈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구단 임직원과 선수단 전원이 참석하는 2007 납회식을 개최한다.

올 시즌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시작되는 이날 행사는 대표이사 인사말과 감사패 전달식, 구단 자체 선정 수훈선수 시상, 코치·선수·직원 등에 대한 공로상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구단이 선정할 올 시즌 최우수선수상엔 이현곤이 선정됐고, 우수투수상 이대진, 우수타자상 김상훈, 기량발전상 문현정, 모범선수상 이범석, 우수지도자상은 차영호 코



치가 받는다.  
이밖에 광주·전남 사진기자회가 선정한 '올해의 포토닉상' 시상식과 선수 15명의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한편 KIA는 이날 오후 KIA를 적극 후원한 최정섭 이비인후과의 최정섭 원장과 한국병원 김오현 정형외과 원장, ㈜일화 이성근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11월 20일 오픈싱업중

# 상무지구 추악의 콘서트

# 밴드피아 7080

중요장기환 가수 공연을 전  
대신금 (목소리)

밴드피아 7080  
밴드피아 7080 밴드

상무지구 밴드피아 오픈싱업 차계 062-381-5542, 382-5542

## 국내 판매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스마트한 생활을 위한 최첨단 기술  
편의와 안전을 위한 최첨단 기술

전기 히터에도 고품질입니다.

최적의 온도 조절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고효율의 특허 기술력!

냉매 소음 자갈 장치 채택

무등산업

062-381-5542, 382-5542